

브레멘의 음악가

옛날에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당나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나귀는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당나귀가 늙고 쇠약해지자, 남자는 당나귀를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당나귀는 이 사실을 알고 브레멘 마을로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나귀는 브레멘 마을의 음악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짖고 있는 개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개는 상당히 슬프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개야, 왜 너는 짖고 있니?”

“나는 늙어가고 있어. 매일 같이 점점 쇠약해 지고 있지.” 개가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어. 우리 주인은 내가 쓸모가 없다고 나를 죽이려고 해. 나는 도망가고 싶은데,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도와줄게.”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나는 브레멘으로 가서 음악대에 들어가려고 해. 나와 함께 가는 게 어때? 내가 류트를 연주하고 네가 드럼을 치면 되겠군.”

개는 당나귀와 같이 가기로 하였습니다. 조금 더 가다가 그들은 슬픈 표정의 고양이도 만났습니다. 고양이는 아주 화가 나 있었습니다.

“고양이야, 왜 너는 그렇게 슬프니?” 당나귀가 물었습니다.

“곧 죽게 될 건데 누가 행복할 수 있겠니?”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그저 불 옆에서 자고 싶을 뿐이야. 내 이빨은 무더서 더 이상은 쥐도 못 잡아. 그래서 내 주인이 나를 죽이려고 해. 나는 내 주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 그렇지만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어.”

“우리하고 같이 브레멘으로 가자”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너는 노래를 잘하니 음악가가 될 수 있어.”

고양이는 당나귀와 같이 가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그들은 농장에 왔습니다. 수탉이 가능한 한 큰 소리로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네가 우는 큰 소리 때문에 내 귀가 아프구나.”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뭐가 잘못 됐어?”

“내일 밤 일요일 저녁식사를 위해 손님들이 올거야.” 수탉이 말했습니다.

“내 주인이 요리사에게 나를 넣고 수프를 만들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우는 거야. 오늘이 나에게는 마지막 날이야.”

“수탉아, 잘 들어”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너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어. 우리와 같이 브레멘으로 가서 연극을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수탉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모두들 같이 갔습니다.

그들은 하루만에 그 마을에 도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숲속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당나귀는 큰 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고양이와 수탉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탉은 심지어 나뭇가지 꼭대기까지 날아 올라갔습니다. 잠이 들기 전에, 수탉은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수탉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불빛을 보았습니다. 수탉은 그것이 어느 집으로부터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고 말하면서 그의 친구들에게 외쳤습니다.

당나귀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가보자. 그곳은 좋은 곳일거야.”

그래서 그들은 불빛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불빛은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곧 그들은 도둑들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당나귀는 가장 키가 컸습니다. 당나귀는 창문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당나귀야, 뭐가 보이니?” 수탉이 물었습니다.

“아주 좋은 음식과 마실 것이 놓여있는 탁자가 보여.” 당나귀가 대답했습니다.

“탁자에 앉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둑들이 몇 명 있어.”

“저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야.” 수탉이 말했습니다.

“그래.” 당나귀가 대답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저 안에 있다면>”

동물들은 도둑들은 어떻게 몰아낼지에 대해 함께 얘기 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당나귀가 창턱에 앞발을 올려 놓았습니다. 개가 당나귀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개의 등에 올라타고 수탉은 고양이의 머리 위에 앉았습니다. 세을 세자마자, 그들은 음악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나귀가 울고, 개는 짖고, 고양이는 야옹거리고, 수탉이 울었습니다. 그들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유리가 집안 전체에 흩날렸습니다.

도둑들은 끔찍한 소리에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너무 무서워서 숲속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음악가 넷은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모두 먹었습니다.

그들이 저녁을 다 먹자마자 그들은 잠잘 곳을 찾았습니다. 당나귀는 바로 문 밖에 있는 짚단 더미에 누웠습니다. 개는 문 옆에 웅크리고 잤습니다. 고양이는 불 옆에 누웠고 수탉은 대들보 중의 하나로 날아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을 끄고 곧 잠이 들었습니다.

숲속에서 도둑들은 자기들 집에서 불빛이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겁먹지 말았어야 했는데” 도둑 대장이 말했습니다.

도둑 대장은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고 오라고 도둑 한 명을 보냈습니다. 도둑이 집에 갔더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집 안이 캄캄해서 그는 부엌으로 촛불을 가지러 갔습니다. 고양이가 불 옆에 있었습니다. 도둑은 고양이의 눈을 활활 타고 있는 석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이 성냥에 불을 붙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양이 눈 가까이로 성냥을 가져갔습니다. 어쨌든 고양이는

그냥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양이는 뛰어 올라 도둑의 얼굴을 때리고 할퀴었습니다.

도둑은 겁에 질려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는 문쪽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가 뛰어서 도둑의 다리를 물었습니다. 그는 집 앞 근처에 있는 짚단 더미를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거기서 당나귀는 그를 힘차고 멋지게 걷어찼습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에 수탉이 잠에서 깬습니다. 수탉은 잠깐 잠을 잔 뒤라서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수탉은 꼬끼오~ 하고 울었습니다.

도둑은 가능한 한 빨리 두목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간신히 나왔네.” 그는 큰 소리로 울면서 말했어요.

“ 그 집안에는 무시무시한 마귀할멈이 있어요. 마귀 할멈이 내게 날아왔어요. 마귀 할멈은 그 긴 손톱으로 내 얼굴을 할퀴었어요. 문 옆에는 칼을 든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내 다리를 찔렀어요. 밖에는 검은 괴물이 있었어요. 그는 나를 곤봉으로 때렸어요. 대들보 위에는 사악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재판관은 “도둑을 여기로 잡아 들여라” 라고 했어요.

도둑들은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쨌든 브레멘의 네 음악가는 아주 편안한 곳을 찾았어요. 그들은 절대로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The Town Musicians of Bremen

Once there was a man. He had a donkey. The donkey worked hard for many years. When the animal became old and weak, the man decided to kill it. The donkey knew this so he decided to run become one of town's musicians.

On the way he came across a dog barking. The dog looked quite sad and troubled.

“What are you barking, Dog?” asked the donkey.

“I am getting old. Every day I feel weak,” said the dog, “ I cannot hunt anymore.

My owner thinks that I am useless so he has decided to kill me. Now I have run away, but how will I make my living?”

“I know how,” said the donkey. “I am going to Bremen, to become a musician. Why don't you come with me? I can play the lute, and you can play the drum.”

The dog agreed and they went on together. A little further along they saw a sad looking cat. The cat looked very upset.

“Why are you so sad, Cat?” asked the donkey.

“Who can be happy when they are about to die?” said the cat. “I am old now. All I want to do is sit by the fire and sleep. I can't hunt mice anymore because my teeth are not sharp. Because of that, my owner wants to kill me. I heard her talking about it so I ran away.

But now I don't where to go.”

“Come with us to Bremen,” said the donkey.

“You are good at singing and you can become a musician.”

The cat thought this was a good idea and joined them. Soon the three came to a farm. A rooster was at the gate crowing as loud as he could.

“Your loud crowing is hurting my ears,” said the donkey. “What’s wrong?”

“Tomorrow night guests are coming for Sunday dinner,” replied the rooster. “My owner told the cook to make me into soup. I am to be killed this evening so I am crowing now. This is my last day.”

“Listen, Rooster,” said the donkey, “you have a good voice. Come with us to Bremen and we can play together. It will be very good.”

The rooster agreed and they all went on together.

They couldn’t reach the town in one day so they decided to spend the night in the forest. The donkey and the dog lay down under a big tree. The cat and the rooster climbed up into the tree. The rooster even flew up to the top branch.

Before going to sleep the rooster looked all around. He saw a light far away. He called out to his friends, saying that it had to be from a house.

“Then,” said the donkey, “let’s go there. This place isn’t very good.”

The dog agreed, so they set off toward the light. The light became brighter and brighter. Soon they were in front of a house of robbers. The donkey was the tallest. He walked up to the window and looked in.

“What do you see, Donkey?” asked the rooster.

“I see a table with very good food and drink on it,” replied the donkey. “There are some robbers sitting at the table enjoying themselves.”

“That’s just what we need!” cried the rooster.

“Yes,” replied what we need!” cried the rooster.

“Yes,” replied the donkey, “If only we were inside.”

The animals talked together about how to drive the robbers out. At last they thought of a plan.

First the donkey put his front feet on the windowsill. The dog climbed up onto the donkey’s back. Then the cat climbed on the dog’s back. And the rooster sat on the cat’s head. At the count of three, they began to make music. The donkey brayed, the dog barked, the cat meowed and the rooster crowed. Then they broke through the window. The glass flew all over the inside of the house.

The robbers jumped up at the horrible noise. They were very afraid and ran off into the forest. The four musicians sat down at the table and ate all the food.

When they had finished dinner, they looked for good places to sleep. The donkey lay down on the pile of straw just outside the door. The dog curled up inside, beside the door. The cat lay down next to the fire and the rooster flew up to one of the beams. Then they turned out the light. Soon they fell asleep.

From the forest the robbers saw the lights in their house go out. Everything at the house was quiet. “We shouldn’t have been so easily frightened,” said the leader of the robbers.

He sent one of his men to see what was happening at the house.

At the house the robber found everything was quiet. It was very dark inside the house, so he went to the kitchen to light a candle.

The cat was there beside the fire. The robber thought the cat's eyes were glowing coals. He then held a match close to the cat's eyes, thinking it would light the match. The cat, however, wouldn't stand for this! He flew at the robber's face and spat and scratched.

The robber was frightened and tried to get away. He tried to run to the door, but the dog jumped up and bit his leg. He ran across the pile of straw near the front of the house. There the donkey gave him a good, hard kick. This noise woke up the rooster. He was feeling very good after from his short sleep. He crowed out, "Cock –a-doodle-doo!"

The robber ran back to his leader as fast as he could.

"Thank goodness I'm safe!" he cried loudly, "There is a horrible witch in the house. She flew at me. She scratched my face with her long fingernails. By the door there is a man with a knife. He stabbed my leg. Outside there is a black monster. He hit me with a club. Up in the beams there is an evil judge. He cried out, 'Bring the robber here!'"

The robber never went back to their house. The four musicians of Bremen, however, found it very comfortable. They never wanted to leave the house again.